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영진



필자가 가르치는 교과목 중에 '전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개설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학생들이 전통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고 싶었고 다른 하나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이었으니 이제 거의 10년에 가까워져 온다. 그때만 해도 강의하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모습과 생각이 남아있었고 학생들도 그것에 대해 아주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은 0.5%에 불과하지만 유교적인 생활방식과 윤리에 따라 생활한다는 사람은 94.5%에 이른다는 당시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속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변화는 IT 등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과 저출산율, 도시화와 노령화가 보

여주듯이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는 아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모습과 가치들도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새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옛것에는 너무나도 낯설다. 한때 유행했던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는 어느 재벌 총수의 말처럼 모두 새것으로 바꾸지 못해 안달이다. 오죽하면 20-30년도 되지 않은 말쑥한 아파트를 때려부수고 재건축한다고 난리인것인가. 지금 노무현정부가 말끝마다 내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다. 세상이 이렇게 보니 사람들에게 전통은 고리타분하고 비효율적이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옳니 그것은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통 역시 생성, 변화, 발전, 소멸하는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때 전통은 부정의 대상뿐만 아니라 계승의 대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

통이라고 하더라도 옛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형식과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과거의 형식을 고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형식이 담고자했던 내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되새겨보고 그 의미를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는 형식으로 되살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럴 때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는 것이다. 온고이저신(溫故而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도 옛사람들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지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을 추석에 여행자들은 대박이 났다고 한다. 차례상을 대행업체에 주문했다가 배달 지연과 상한 음식으로 낭패를 봤다는 기사는 오히려 여지없이 등장한다. 중국이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제일 관심을 끈 것은 "추석명절이 자신과 같은 10대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한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와 고3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필자가 장손이어서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낸다.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는 조금 늦게 시작해 중3과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아들 녀석도 전을 부치느라 새벽 4시 30분까지 잠을 못 자는 등 야근벌레 끝에 겨우 친척분들을 모시고 차례를 지낼 수 있었다. 두 녀석은 아직 명절이나 차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오늘의 자신들이 있게 한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그에 대한 정성스런 마음이 아닐까.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북핵실험 모든 수단 동원해 포기시켜야

북핵 문제가 극도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일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북한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잇따른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한반도가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는 것 아닌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은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도발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이 어떤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말을 늘어 놓아도 핵실험 강행은 결국 한반도에 위험을 몰고 가는 한민족의 생존 토대마저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재촉할 재앙이 될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기술을 확산한다면 다소나를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섬뜩한 경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기정사실화한 현 시점에서 '포용이나 압박이냐'의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실험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거액의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냉철하고도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로 예정된 한·중·일 3개국 연세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3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북측이 오관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제난에 안보불안까지...할 말 잃은 민심

민심은 이제 할 말을 잃었다. "먹고 살기가 너무 고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은 무얼 먹고 사느냐" "이런 판국에 정계 개편이니 내권이니 정치놀음할 할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정부는 무얼 했느냐"... 추석연휴 동안의 길거리 민심이다. 지역구를 돌아 본 정치인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얽힌 데 묘한 격으로 불거져 나온 북측의 핵실험 강행 선언으로 민심은 의욕마저 잃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민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은 고로프고 내일은 불안하다"는 농민의 한숨은 날로 악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초의 고달픔이 추석 민심에 고스란히 배어 나온 것이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체감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도 가늠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은 민심을 더욱 위축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일반적인 퍼주기 식 대북 외교의 결과로 민족의 존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핵실험이냐"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광배해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생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라"라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면 민심은 사나워지게 마련이다.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고 냉소다. '할 말을 잃은 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치권과 정부는 꼭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이병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MBC와의 '100분 토론'에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분양원가공개 여부와 관련한 정책방향 중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원가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대통령의 인식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투기적 요소가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될 경우 거품이 형성되고 이러한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전체의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장기불황 과정을 통해 이미 실증된 바와 같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가격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한 것이다.

소에 의한 가격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관공분양가 역시 거품이지만 거품에 편승하는 투기적인 수요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의미일까? 둘째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시되는 측면은 정책의 일관성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까지 분양원가공개가 '장사의 원리'에 반하므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이번 토론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판교와 같이 인기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이득을 못 보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적자도 정부

기고

박철홍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남부지역들은 지금 마시고 있는 수돗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남 남부지역은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가까운 곳에 없고,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한곡수자원공사(K-water)는 이런 전남 남부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남도지역은 연중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며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거의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설을 갖춘 덕정정수장(장흥군 부산면 소재)에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하여 전남도청을 비롯한 남양신도시와 목포시 하당 신도심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점진적으로 전남 남부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실 목포시 상수도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물사정이 열악한 도시로서 그동안 물부족과 수질관련 불만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주암댐이 완공되고 주암댐 원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수도도 관련 민원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더욱이 장흥댐의 정수가 공급됨으로써 거

전남 물부족 완전해결 머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전남지역 수자원 특성을 고려할 때 홍수 피해를 막고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 있는 일차적인 노력중 하나가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리 공사는 광주시·목포시·순천시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삼진강·보성강 유역에 7억톤 규모의 주암다목적댐(전남 순천 주암면 소재)을 1991년에 완공하였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전국 최상위권인 2급수의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며 전남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남 남부권(목포시·장흥군·완도군 등)의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흥다목적댐(장흥 소재, 총 저수용량 1억9천100만톤)이 10년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되었다. 아파트에서 하루 저녁 9월 29일부터 장흥다목적댐의 용수를 최첨단 정수시

준에 공급된 주암댐과 더불어 2개 광역상수원 체계를 갖추며 전국에서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변모되었다. 더불어 2007년 준공 예정인 광림다목적댐(장흥군 소재)이 건설되면 전남지역은 더 이상 물에 대한 걱정 없이 풍부한 수자원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다목적댐인 주암댐·장흥댐·광림댐을 건설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남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공사에서는 앞으로도 남도민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늘 고민하며 새벽에 산 속 깨끗한 정화수를 길러 가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도의 풍요롭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아파트 상가 상대 부녀회 찬조금 요구 없어졌으면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두 여자가 찾아와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에서 주말에 노인정에서 경로잔치를 할 예정이라며 찬조금을 요청했다. 아파트 앞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찾아와 사업 찬조금을 내라고 하면 선뜻 거절하기 어렵다. 아파트에서 주부들끼리 모인 부녀회의 입김은 워낙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일

소 주인 성질 나쁘네'등 악소문을 퍼트리고 왕따를 시작하면 장사태세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일 하는데 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상가들도 요즘 힘들다. 장사가 안돼 파란만 날다가 집에 돌아가는 상가가 많다. 아파트 부녀회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심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철학의 빈곤

그런데 이번 분양원가공개에 관한 정책적인 함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주술과 같이 따라붙는 대중영합주의, 반 시장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문제 인식의 모순된 관점이다. 노 대통령은 "강남 아파트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이 사용가치와 수요공급의 원리도 따지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메카니즘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비경제적인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분양된 관공의 소형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것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로 급격히 폭등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중가격'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이 수익을 가지고 다른 공익사업에 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정부는 강남권, 분당, 목동 등 7개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발표할 바 있다. 그 취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넘어선 투기적 요

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원가공개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셋째 분양원가공개라는 흐름은 결국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통제를 의도하는 것이고, 이는 주택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의 포기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그 정책적 '진정성'과 무관하게 가격기구를 통제하는 정책이 낡은 장기적인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나 그 의도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정반대의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참여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자 한다. 그럼에도, 지난 3년여 동안의 참여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서 여전히 낡은 불안감은 필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의 진정성과 이를 담보하는 국가경쟁력학 사이에서 시장은 여전히 참여정부의 '시장주의적 철학의 빈곤'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 법대 교수·변호사>

고속버스 승차권 도착예정시간 표시 했으면

회사 업무로 고속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고속 버스 승차권에 도착시간이 표시되지 않아 불편하다. 기차표의 경우 도착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버스표는 대부분 도착시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초행길의 경우 그때마다 물어 봐야 한다. 터미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도로 사

정에 따라 도착시간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도착시간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도착 예정 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예정시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차권에 표시하면 간단하다. 조그만 것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흥동

無等鼓

1945년 4월 12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루스벨트가 사망했다. 대통령직은 부통령 해리 S. 트루먼에게 승계됐다. 전쟁장관 헨리 스티븐슨이 취임 직후 트루먼에게 메도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앞으로 녀달 안에 우리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무기보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완성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폭탄 개발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새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16일, 포츠담 회담차 유럽에 가있는 트루먼에게 스티븐슨의 전문이 날아왔다. 암호화된 전문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수술을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의 이해와 관심이 아니고서는 이 힘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폭 실험 성공을 본 '원자폭탄은 이렇게 갈라졌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맨해튼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트루먼을 만난 자리에서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어있는 느낌입니다"라며 전술했다. 이후 세계는 핵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의 경연장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5조 달러의 돈을 쏟아부어, 7만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핵무기가 강대국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북한을 포함, 최소 14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

핵무기의 역할



하고 있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추출한 잠재적 핵개발 국가도 60여개국에 이른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경제 빈국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에너지 이용으로 우리 세대는 선사시대 불의 발견 이후 가장 혁명적인 힘을 세상에 끌어 들이게 되었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